제주특별자치도	보도자료	2026. 11. 9.(월) **배포 즉시**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	김수미	☎ 760-7601
		업무담당자	고성우	☎ 760-768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2

맞춤형 안전관리로 농작업 위험성 54.3% 감소 효과

- 동부농업기술센터, 구좌읍 세화1리 시범사업…안전관리 수준 12.5% 향상 -

- 보호구·운반 장비 지원, 하우스 차광망 설치로 사고·온열질환 예방 -

❑ **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가 구좌읍 세화1리에서 농작업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안전관리를 지원한 결과,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은 12.5% 높아지고 작업 위험성은 54.3% 줄었다.**

○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화1리 마을회를 대상으로 ‘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’을 추진했다.

❑ **전문가 자문으로 농작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절단·충돌·끼임 사고 위험과 온열질환 등 건강 유해요인을 찾아 분석하고, 작업방식 개선과 안전장비·보호구 지원 등 맞춤형 예방조치를 했다.**

○ 예초 작업 때 보호구 착용, 사다리 안전 사용 등 작업별 안전수칙을 교육하고, 운반 장비를 보급해 손으로 짐을 나르는 신체 부담을 줄였다.

○ 고온기 하우스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차광망을 설치하고,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는 근육 테이프 붙이기(테이핑) 요법과 관절보호대 활용법을 안내했다.

❑ 사업 전후를 평가한 결과,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은 816.8점에서 918.5점으로, 농작업 위험성은 15.3점에서 7.0점으로 바뀌었다.

○ 안전관리 수준은 농작업・농기계・농작업장・위험물질・안전환경 관리 등 5개 항목을 1,0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.

○ 농작업 위험성은 사고 발생 빈도(5단계)와 피해 강도(4단계)를 곱해 산출했으며, 제초・예초 작업은 16점에서 9점, 열매솎기와 수확 작업은 각각 15점에서 6점으로 낮아졌다.

❑ 김수미 동부농업기술센터 소장은 “이번 사업으로 농업인들이 작업 과정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실천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”며 “농업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영농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